

'고하 송진우 선생' 서거 80주기 추모식

장광호 편집국장 승인 2025.04.25 15:26

5월 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출신 애국지사



▲탄신 135주년 기념 학술대회

담양출신 항일 애국지사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5주년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이 오는 5월 8일 오후3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이날 추모식은 (재)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최로 국가보훈부,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열린다.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일을 맞아 기념사업회는 해마다 서울 동작동 국

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올해 추모식은 개식, 국민의례, 약전봉독(김종인 가인 김병로 선생 손자), 추모식사(김창식 이사장), 추모사(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김황식 전.국무총리), 기념강연,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강연은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구상과 행동'을 주제로 이택선 명지대학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고하 송진우 선생은 1890년 담양 금성면 대곡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고향마을에서 보냈으며 1908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수학한 뒤 귀국, 1919년 서울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

이후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의 탄압속에서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국민계몽운동, 마라톤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등을 일으켜 일제의 탄압을 받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건국을 위해 진력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서거했다.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선생의 고향인 담양 금성면 대곡마을에 복원된 생가와 기념관, 담양읍 관어공원에 추모비, 담양공고 앞 삼지공원에 추모시비가 있다.

한편, 추모식에 앞서 지난 3월 12일에는 탄신 135주년 및 서거 80주년을 기념해 (재)고하송진우기념사업회 주최로 고하 송진우 선생의 항일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조명하는 기념학술대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송진우의 민족독립과 자유민주건국을 위한 활동'을 주제로 고하 송진우 선생의 항일민족독립운동을 비롯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 해방직후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까지 활발한 애국활동을 펼쳐왔던 선생의 업적과 발자취를 살펴봤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